

## 「선박안전기술공단」출범에 즈음하여



김성규 이사장

친애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월이 지난 지금 산들 바람을 타고 봄이 오는 소식이 들려오고, 산과 들에서는 추운겨울을 이겨내고 새싹이 돋아나는 4월을 맞이하여 해양수산인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협회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는 4월 4일부터 우리협회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됨을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협회는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선박검사등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 운영되면서 자신들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로 오해받아 왔으나, 이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는 새옷을 갈아입게 됨으로써 선박안전관련 공익 전문기술단체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협회 전임직원들은 이번 선박안전기술공단 출범을 계기로 고객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5월부터는 “검사협회 소식”지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보다 알차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고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고객님들께서 “검사협회 소식”지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4월

이사장 김성규